

한국과 네팔의 6차 산업 기업가정신 비교연구

김 연 종*, 박 상 혁**, 이 경 연***

A Comparative Study on Entrepreneurship of the 6th Industry in Korea and Nepal

Kim Yeonjong·Park Sanghyeok·Lee Kyoungyeon

〈Abstract〉

Entrepreneurship is recognized as an essential education in start-up education. However, domestic studies on entrepreneurship in developing countries are extremely r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and the perception of implementation of Korean and Nepalese farmers, and to seek a start-up education strategy based on the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in the 6th industry between two countries, but the degree of entrepreneurial spirit performance was high in Nepalese farmers. Second, in term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portance and execution of the 6th industry entrepreneurship, Korea had lower performance than importance in all factors, and Nepal had higher importance than implementation in innovation, initiative, cooperation, and networking capability. Third, 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portance and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in each country, the level of implementation was uniformly lower than that of importance in Korea, but the height of the Nepalese farmers was not uniform.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studied entrepreneurship in Korea and Nepal, contribute greatly in terms of promoting the national economy by creating new added values.

Key Words : Entrepreneurship, 6th Industry, Korea, Nepal,

I. 서론

창업교육에 있어 기업가정신은 반드시 필요한 교

육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기업가정신을 활용한 경영성과나 창업의지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는 극히 드물다[1].

본 연구의 대상국가인 네팔은 농업중심국가로 전체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강사(제1저자)

**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대학원 교수(교신저자)

*** (사)글로벌창업네트워크 이사(참여저자)

GDP의 34%를 농업이 차지하고 있다[1,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야의 부족, 열악한 관개시설, 구식 농업기술로 인해 만성적으로 낮은 생산성에 시달리고 있다. 제조업 분야도 전체 GDP의 6.2%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네팔은 인프라의 부족, 잦은 파업 등의 노동분쟁, 좁은 국내시장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3].

이러한 환경에서 6차 산업은 네팔의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가내수공업과 여성, 고령자 위주의 경제활동으로 충분히 이윤을 창출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한국과 네팔은 저소득국가로 자원이 부족하고 인적자원만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은 10대 강대국으로 급성장한 반면 네팔은 아직 저소득국가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농업분야를 대상으로 네팔과 한국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네팔 농업의 혁신의 지점을 찾고자 한다. 한국과 네팔에서 진행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의 수준을 측정 및 비교하고,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업가정신 요인을 모색하여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교육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또한 네팔 농업인에게 요구되는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보다 창의적인 기업운업을 위한 자질 향상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2.1 6차 산업 정의

6차 산업은 농촌지역 주민 주도로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1차 산업을 기반으로 2차, 3차 산업과 연계하여 창출된 부가가치 산업이다. 전통적인 1차 산업인 농업을 바탕으로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제조, 가공의 2차 산업과 체험, 관광 등의 서비스

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4].

6차 산업은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판매와 더불어 2, 3차 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소비자에게는 농부가 직접 만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와 농촌의 맛과 멋의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농촌지역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4, 5].

2.2 한국과 네팔의 경제상황 비교

네팔은 2019년 기준 147천 km²면적, 인구 28.5백만 명이고, 정치체제는 공화제이며 대외정책은 비동맹중립이다. 경제상황으로는 GDP 298억 달러, 1인당 GDP 1,047달러, 112.40환율(US\$)인 국가로, 히말라야 산맥 서남부에 위치하고 중국과 인도에 국경이 접해 있다. 대통령이 국가원수이나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 중이며, 의원내각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다.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한 해외노동자 송금액이 민간소비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또한 정치적 안정의 지속에 힘입은 민간투자의 확대로 2019-2020 회계연도의 경제성장률이 7.1%를 기록하였다. 석가모니 탄생지인 룸비니, 히말라야 산맥 등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 주도의 관광업 활성화 정책으로 네팔은 향후 관광 분야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6].

한국과는 1974년 5월 15일 수교이후 영사협정('69), 무역협정('71), 차관공여협정('03), 이중과세방지협정('03), 항공협정('05), 문화협정('05), 무상원조협정('15)을 통해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합성수지를 수출하고, 섬유제품, 의류, 식물성 물질을 수입하는 등 2019년 49,199천 달러 수출과 2,921천 달러 수입이 발생하였다[6].

세계은행들의 최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네팔 경제가 해외 노동자 송금 유입 및 인프라 투자 지속, 관광객 유입확대 등에 힘입어 6% 후반대의 경제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네팔 정부는 2019-2020 회계연도(19.7월~20.7월)의 경제성장 목표치를 8.5%로 정했으나, 경제정책 실행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향후 네팔의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와 총투자 확대에 힘입어 연간 경제성장률이 반등하고, 식음료 부문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지출 확대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예산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대외거래는 상품수입 확대에 발생한 경상수지 적자 폭이 점차 축소될 전망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외환보유액과 총외채 규모는 양호한 수준이나 총외채는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6].

2.3 한국과 네팔의 6차 산업 기업가정신

슈페터(Josph Schumpeter, 1883-1950)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창조적 파괴’로 부르며, ‘새로운 조합’으로 오래된 산업을 폐기하고 새로운 혁신 산업을 만드는 기업가의 추진력이라 설명한다. 경영학계 최고 구루(guru)인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기업가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묘사하였다[7]. 따라서 기업가정신은 모든 사회에서 경제성장과 고용기회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인지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성공적인 기업가는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및 빈곤 감소를 추구해야 하므로 기업가정신이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다[8].

계층적 조직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지위를 부여하는 커뮤니티 또는 전문 지식인들은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변화하는 환경을 빨리 통찰하여 자기 스스로 창출하는 능력, 자기의 위험 부담에 새로운 요소를 결합하여 의

사결정을 하는 능력이다[9].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실천은 기업이익, 사회책임, 노사화합, 기업성장 등을 이루게 함으로써 무한 경쟁이라는 경영환경 속에서 생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9].

네팔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는 극히 드물지만, 몇 명의 연구자들에 의해 심도 있게 연구되었다. 정성적 연구인 네팔과 핀란드의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글로벌 측면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유, 독립성 및 열정이 공통적 동기부여요소로 나타났다. 또한 자금부족, 비즈니스 관리 기술부족, 신뢰할 수 있는 자원부족, 창업자본 및 제한된 네트워크는 젊은 기업가들의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10]. 계획된 행동모델에 의한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의도 간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만 그 영향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11]. 또한 캄보디아, 몽골, 네팔, 페루, 르완다 대학생들의 잠재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문화적 영향 연구도 존재하였다[1]. 공공기술 기관과 민간기술 기관간의 기업가정신의 격차에 대한 연구[12], 실업과 빈곤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네팔의 기술, 직업교육 및 훈련을 통한 기업가적 개발을 중요시한 연구[13, 14], 네팔 여행 사업에 대한 여성 기업가정신 연구[15] 등도 존재하였다.

네팔의 기업가에 대한 실증연구에서는 10명의 기업가와 5명의 대학 교수들을 조사하여 기업가의 역할과 네팔기업가들이 직면한 장벽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기업가적 동기부여 전망을 제시하였다[16].

6차 산업 기업가정신과 유사한 네팔의 농업기반 기업가정신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업을 우선시 하고, 농업과 축산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더욱 안정되고 강화된 농업의 상업화와 경쟁력을 구축하였다. 세금 인센티브, 농업기업 인큐베이터, 매칭 보조금을 통한 농업혁신과 농업 기업가정신 육성을 농업개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과 네팔의 농업

기업가정신의 약점, 기회, 위협들은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6차 산업화는 2011년 이후 농업분야에서 생겨난 정책으로써 농업활동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곁셈으로 연계시킴으로써 1차 산업인 농업과 그 주변에 있는 관련 산업이 융·복합되어 발전하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18, 19].

경제학에서 말하는 페티클라크법칙(Petty's Law)에서 언급하는 1차, 2차 산업을 거쳐 3차 산업으로 이동하여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라는 견해는 1차 산업을 쇠퇴하게 한다[5, 18, 20].

<표 1> 네팔의 농업기반 기업가정신의 SWOT분석

Strength	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verse Climatic condition Niche specific commodity Rich in plant biodiversity Government priority sector Agriculture and Livestock Insurance Scheme Change in food consumption pattern Indigenous and Traditional Knowledge(ITK) 	<ul style="list-style-type: none"> Average land holding Land Degradation Lack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Low Competitiveness Gap between export quality requirement and available quality Lack of agricultural value-chain and systems research Poor linkages between technology generation and dissemination
Opportunities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Agro-Processing Sector Agro-Tourism Bee-Keeping Diversification Export Potentialit Flori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Climate Change Unorganized trade practices with India Global competition High cost of modern technology Skilled migration and brain drain

출처 : Regmi & Naharki(2020) 재인용

6차 산업화를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점은 생산을 기반으로 타 산업과의 융·복합이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농업의 다변화를 모색

<표 2> 한국의 농업기반 기업가정신의 SWOT분석

Strength	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원적 가치 정부지원정책 체계적 조직화 전후방 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구조문제 경영역량 부족 농업인구감소 일자리 감소
Opportunities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변화 6차 산업인지도 증대 4차 산업혁명 주5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개방 정책 변동성 정보부족 및 비대칭 기술적 오류

출처 : 김강현(2021) 재인용

하고 타부문과의 연대를 통해 농업의 전후방 산업 전체에서 정보와 지식의 흐름을 활성화시켜 다양한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18]. 따라서 6차 산업화라는 용어는 <표 3>에서 보듯이, 나라마다 공식적인 이름은 상이하지만 기술 진보를 반영하여 유사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8].

<표 3> 한국, 일본, 미국, EU의 6차 산업화 대응개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EU
정책	6차 산업화	지산지소화	Farm Future	LAEADER
근거법	농업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2014)	지산지소법(2011)	Agriculture Act of 2014	Liaisons Entre Development de l'Economie Rura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경영체의 수직적 통합 마을단위 조직화 원거리 유통 체계 규모화와 다각화 동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상공 연계 지역활성화 네트워크 활동 교류금 포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팜 유기농업 식품안전 데이터베이스 산학연 데이터 공유(빅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경영다각화정책 근거리 유통 체계 가족농 중심의 분업화 조직화(마을단위, 시장단위, 가족단위) 개별경영체수평적+수직적통합

출처 : 김강현(2021) 재인용

6차산업 기업가정신은 전통적인 기업가정신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3가지 요인으로 표현되거나 혹은 5가지 요인(혁신성, 사회적 책임, 민첩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후 진정

성, 도전성, 네트워크역량, 가치창출, 협력성, 갈등조절역량, 의사소통능력을 추가하여 최종 9개의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4, 21].

국가 간 기업가정신 지수 비교는 한·중 비교[22, 23], 한·미간 학술지 비교[24], 요소주도형(2개국), 효율주도형(8개국), 혁신주도형(10개국)으로 구분하여 한국의 기업가정신 수준이 낮음을 확인한 연구[25] 등이 존재하였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IPA분석은 한국 사례분석인 김연중, 박상혁[26], 공과대학 여학생 연구인 김세영 외[2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례에서 모든 요인이 중요도보다 실행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소 평균 0.13(협력성)에서 최대평균 0.44(진취성)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팔과의 비교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 없어 기존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나타난 사례 기반으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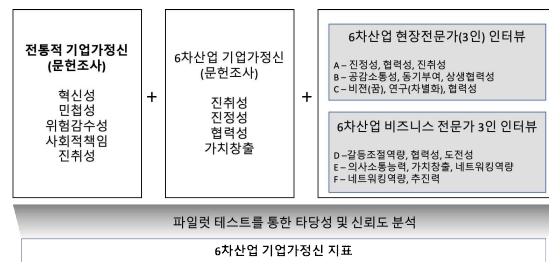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의 중요도는 한국과 네팔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의 실행도는 한국과 네팔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의 중요도-실행도간의 차이는 한국과 네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1. 한국 농업인의 6차 산업 기업가정신 중요도-실행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2. 네팔 농업인의 6차 산업 기업가정신 중요도-실행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대상 및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는 2019년 2월 네팔 현지와 2016년 한국의 창업교육 과정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의 6차 산업에 관련자들과 네팔에서 농업기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을 대상으로 김성규 외 연구[21]에서 개발된 6차 산업 기업가정신 검사지를 동일하게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네팔 설문자료는 이경연의 석사학위논문(2016)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7].

6차 산업 기업가정신 측정도구는 전통적인 기업가정신 변인(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민첩성, 사회적 책임)과 자기개발, 진정성, 협력성, 가치창출 등을 포함하였다. 6차 산업 현장전문가 3인과 비즈니스 전문가 3인의 인터뷰를 통해 추출된 공간 소통성, 동기 부여, 상생 협력성, 갈등 조절역량, 네트워크역량, 의사소통능력, 추진력, 정보력 등은 전문가들과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최종 9개의 요인으로 설정되었다[27]. 본 연구에서는 6차 산업에 대한 기업가정신을 중점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해당 검사지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해당내용을 종합한 것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6차 산업 기업가정신 지표개발(김성규 외, 2016, 연구자 재구성)

<표 4> 연구에 사용된 기업가정신 검사지의 Cronbach's Alpha

6차산업	문항수		한국		네팔	
	중요도	실행도	중요도	실행도	중요도	실행도
혁신성	5	5	.835	.875	.610	.636
진취성	5	5	.885	.885	.684	.691
위험감수성	5	5	.838	.884	.621	.740
사회적책임	6	6	.915	.920	.738	.787
진정성	5	5	.935	.949	.690	.643
협력성	5	5	.902	.928	.679	.750
도전성	5	5	.792	.875	.661	.633
의사소통능력	5	5	.858	.946	.697	.718
네트워킹역량	5	5	.902	.932	.649	.750

연구에 사용한 검사지는 사회적 책임 부분만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요인들은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중요도는 기업운영이나 창업 시 얼마나 중요한지를 측정하고, 실행도는 기업운영이나 창업 시 자신의 보유수준을 측정하였다. 각 기업가정신 개별요인의 측정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 최소 0.610에서 최대 0.949로 나타나 내적일치도가 비교적 신뢰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인은 104명, 네팔인은 6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전체 대상자의 30%수준이었으며 한국의 여성비율이 다소 높았다. 연령은 한국의 경우 2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분포하였고, 주로 40대 이상이었다. 반면 네팔인은 20대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았으며, 20대와 30대가 주를 이루었다($\chi^2=80.450, p<.001$). 학력은 한국의 경우 대졸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네팔은 중졸과 고졸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3.223, p<.01$). 재배작물은 한국의 경우 식량작물, 시설채소, 과수가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네팔은 시설채소가 다소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한국은 가공, 유통체험과 같은 6차 산업을 하는 경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 5>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한국	네팔	전체	$\chi^2(p)$
성별	여자	39(37.5)	18(29.5)	57(34.5)	1.086 (.297)
	남자	65(62.5)	43(70.5)	108(65.5)	
연령	20대	3(2.9)	21(34.4)	24(14.5)	80.450*** (.000)
	30대	8(7.7)	24(39.3)	32(19.4)	
	40대	36(34.6)	16(26.2)	52(31.5)	
	50대	47(45.2)	-	47(28.5)	
	60대이상	10(9.5)	-	10(6.1)	
학력	중졸	4(3.8)	12(19.7)	16(9.7)	13.223** (.004)
	고졸	16(15.4)	13(21.3)	29(17.6)	
	대졸	59(66.3)	30(49.2)	99(60.0)	
	대학원	15(14.4)	6(9.8)	21(12.7)	
재배작물	식량작물	19(18.3)	9(14.8)	28(17.0)	7.708 (.173)
	시설채소	16(15.4)	14(23.0)	30(18.2)	
	과수	17(16.3)	11(18.0)	28(17.0)	
	축산	4(3.8)	6(9.8)	10(6.1)	
	화훼	6(5.8)	-	6(3.6)	
6차산업	기타	42(40.4)	21(34.4)	63(38.2)	-
	생산	76(73.1)	53(86.9)	129(78.2)	
	가공	53(51.0)	5(8.2)	58(35.2)	
사업형태	유통/체험	104(100.0)	3(4.9)	107(64.8)	29.677*** (.000)
	농업회사법인	17(16.3)	15(24.6)	32(19.4)	
	영농조합법인	22(21.2)	6(9.8)	28(17.0)	
	개인사업자	38(36.5)	10(16.4)	48(29.1)	
	협동조합	-	10(16.4)	10(6.1)	
	예비창업자	16(15.4)	16(26.2)	32(19.4)	
기타	11(10.6)	4(6.6)	15(9.1)		
전체		104	61	165	

p<.01 *p<.001

네팔은 주로 생산위주였다. 사업형태는 한국은 영농협동조합, 개인사업자가 많았으나 네팔은 협동조합과 농업회사법인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표 5).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처리하였다.

첫째, 모든 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한국과 네팔 농업인 간 교차분석 및 다중응답분석(6차 산업)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검사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로 측정하였으며, 0.6 이상인 경우는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실행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측정하였다. 한국과 네팔간의 인식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 test)을 이용하여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실행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넷째, 각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중요도와 실행도의 인식차이는 종속표본 t 검정(paired t test)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해 한국과 네팔의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의 개선전략을 모색하였다.

다섯째,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alpha=.05$ 를 기준으로 하였다.

IV. 연구결과

4.1 국가별 6차 산업 기업가정신 중요도 인식차이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책임, 진정성, 협력성, 도전성, 의사소통능력, 네트워킹능력 9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의 중요도 수준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한국 농업인의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의 중요도는 평균 4.12, 네팔 농업인의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의 중요도는 평균 4.17로 나타나 양국 간 중요도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농업인의 6차 산업 기업가정신 중요도는 진취성(M=4.38) > 진정성(M=4.33) > 혁신성(M=4.32) > 협력성(M=4.15) > 의사소통능력(M=4.13) > 네트워킹능력

<표 6>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의 중요도-실행도

특성	중요도					실행도					한국					네팔								
	한국		네팔		전체	한국		네팔		전체	중요	실행	분류	차이	paired t(p)	중요	실행	분류	차이	paired t(p)				
	M	순위	M	순위		M	M	순위	M												순위	M	M	중요
혁신성	4.32	3	4.35	1	4.33	-4.89 (.626)	4.12	1	4.22	2	4.15	-1.248 (.214)	4.32	4.12	H	H	0.20	3.852*** (.000)	4.35	4.22	H	H	0.13	2.459* (.017)
진취성	4.38	1	4.30	3	4.35	1.081 (.281)	3.94	5	3.66	9	3.83	-3.417***(.001)	4.38	3.94	H	H	0.44	7.255*** (.000)	4.30	3.66	H	L	0.64	10.142*** (.000)
위험감수성	3.56	9	4.21	5	3.80	-6.870*** (.000)	3.36	9	4.13	3	3.65	-7.547*** (.000)	3.56	3.36	L	L	0.20	3.256** (.002)	4.21	4.13	H	H	0.08	1.305 (.197)
사회적책임	4.04	8	3.92	8	4.00	1.280 (.202)	3.73	8	3.94	8	3.81	-2.178* (.031)	4.04	3.73	L	L	0.31	5.529*** (.000)	3.92	3.94	L	L	-0.02	-0.430 (.669)
진정성	4.33	2	3.89	9	4.17	5.359*** (.000)	4.09	2	3.95	7	4.04	1.450 (.149)	4.33	4.09	H	H	0.24	4.140*** (.000)	3.89	3.95	L	L	-0.06	-0.738 (.464)
협력성	4.15	5	4.34	2	4.22	-2.599* (.010)	4.02	3	4.23	1	4.10	-2.235* (.027)	4.15	4.02	H	H	0.13	2.495* (.014)	4.34	4.23	H	H	0.11	2.274* (.027)
도전성	4.05	7	4.11	7	4.07	-.864 (.389)	3.81	6	4.03	6	3.89	-2.665***(.008)	4.05	3.81	L	L	0.24	3.853*** (.000)	4.11	4.03	L	L	0.08	1.661 (.102)
의사소통 능력	4.18	4	4.14	6	4.17	.518 (.605)	4.02	3	4.12	4	4.06	-1.041 (.299)	4.18	4.02	H	H	0.16	2.755** (.007)	4.14	4.12	L	H	0.02	0.570 (.571)
네트워킹 역량	4.07	6	4.30	3	4.15	-3.005** (.003)	3.74	7	4.12	4	3.88	-3.537***(.001)	4.07	3.74	L	L	0.33	5.143*** (.000)	4.30	4.12	H	H	0.18	3.690*** (.000)
전체	4.12		4.17		4.14	-.957 (.340)	3.87		4.04		3.93	-2.648***(.009)	4.12	3.87			0.25	8.402*** (.000)	4.17	4.04			0.13	4.961*** (.000)

*p<.05 **p<.01 ***p<.001

(M=4.07) > 도전성(M=4.05) > 사회적 책임(M=4.04) > 위험감수성(M=3.5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네팔 농업인의 6차 산업 기업가정신 중요도는 혁신성(M=4.35) > 협력성(M=4.34) > 진취성(M=4.30) > 네트워킹능력(M=4.30) > 위험감수성(M=4.21) > 의사소통능력(M=4.14) > 도전성(M=4.11) > 사회적 책임(M=3.92) > 진정성(M=3.89)의 순으로 나타났다.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의 중요도에 대한 한국과 네팔의 평균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혁신성, 진취성, 사회적 책임, 도전성, 의사소통능력 및 전체 기업가정신 중요도는 한국과 네팔 간에 차이가 없었다. 위험감수성($t=-6.870, p<.001$), 협력성($t=-2.599, p<.001$), 네트워킹역량($t=-3.005, p<.01$)은 한국보다 네팔이 높은 수준이었으며, 진정성($t=5.359, p<.001$)은 한국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결과 “6차 산업 기업가 정신의 중요도는 한국과 네팔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4.2 국가별 6차 산업 기업가정신 실행도 인식차이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의 실행도 수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한국 농업인의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의 실행도는 평균 3.87, 네팔 농업인의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의 실행도는 평균 4.04로 한국보다 네팔의 실행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648, p<.01$).

한국 농업인의 6차 산업 기업가정신 실행도는 혁신성(M=4.12) > 진정성(M=4.09) > 의사소통능력(M=4.02), 협력성(M=4.02) > 진취성(M=3.94) > 도전성(M=3.81) > 네트워킹역량(M=3.74) > 사회적 책임(M=3.73) > 위험감수성(M=3.3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네팔 농업인의 6차 산업 기업가정신 실행도는 협력성(M=4.23) > 혁신성(M=4.22) > 위험감수성(M=4.13) > 네트워킹능력(M=4.12), 의사소통능력(M=4.12) > 진정성(M=4.04) > 도전성(M=3.89) > 진취성(M=3.83) > 사회적 책임(M=3.81)의 순으로 나타났다.

6차 산업 기업가정신 실행도에 대한 한국과 네팔의 평균 인식차이는 혁신성, 진정성, 의사소통능력의 경우 한국과 네팔 간 실행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기업가정신은 실행도($t=-2.648, p<.01$) 및 진취성($t=-3.417, p<.01$), 위험감수성($t=-7.547, p<.001$), 사회적 책임($t=-2.178, p<.05$), 협력성($t=-2.235, p<.05$), 도전성($t=-2.665, p<.01$), 네트워킹역량($t=-3.537, p<.01$), 진정성($t=5.359, p<.01$)에서 한국인보다 네팔인 들의 실행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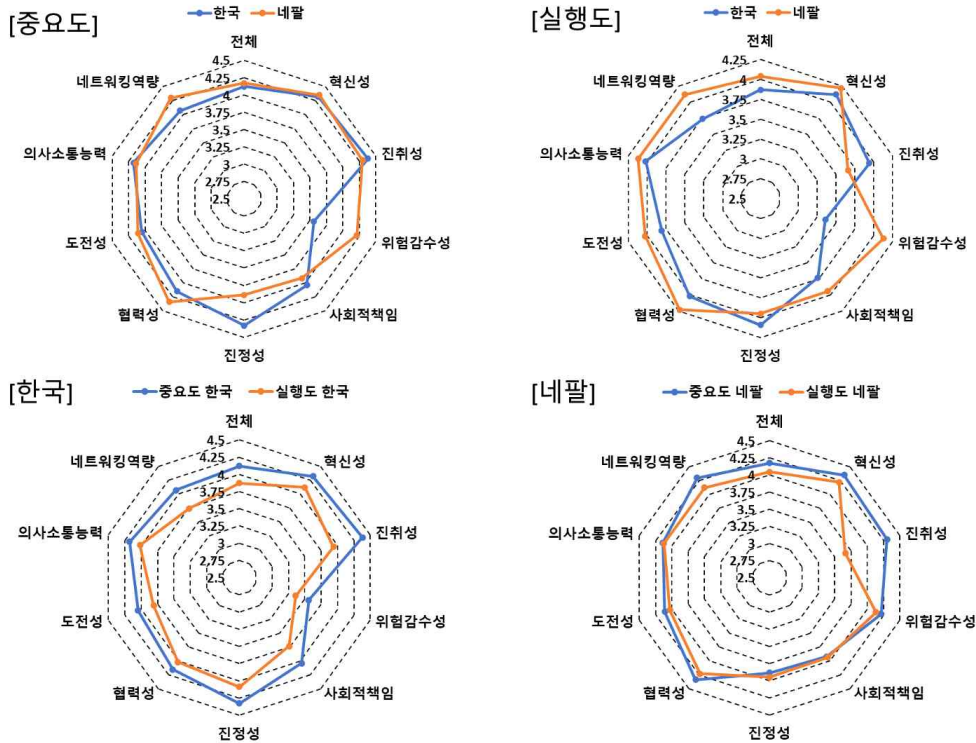
따라서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의 실행도는 한국과 네팔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2는 채택되었다.

4.3 국가별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의 중요도-실행도 인식차이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의 국가별 중요도-실행도를 종속표본 t검정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표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중요도보다 실행도의 인식이 낮았다. 네팔은 위험감수성, 사회적 책임, 도전성, 의사소통능력에 대해서 중요도와 실행도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혁신성($t=2.459, p<.05$), 진취성($t=10.142, p<.001$), 협력성($t=2.274, p<.05$), 네트워킹역량($t=3.690, p<.001$)에서 중요도의 인식이 실행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의 중요도-실행도 간의 차이는 한국과 네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세부가설 가설 3-1



<그림 2> 한국과 네팔의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의 중요도-실행도 차이

“한국 농업인의 6차 산업 기업가정신 중요도-실행도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와 가설 3-2 “네팔 농업인의 6차 산업 기업가정신 중요도-실행도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도 모두 채택되었다.

<그림 2>는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한국과 네팔을 비교한 그래프이며(상위), 한국과 네팔의 국가별 중요도-실행도간의 차이를 시각화(하위)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과 <그림 4>, 그리고 <표 6>에 제시된 IPA Matrix를 통해 살펴본 결과, 혁신성, 사회적 책임, 협력성, 도전성은 두 나라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진취성, 위험감수성, 진정성, 의사소통능력, 네트워킹역량의 요인은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타났다.

IPA분석에서 중요도 수준과 실행도 수준이 모두

높은 현상유지(Keep up the good work) 영역은 한국의 경우 혁신성, 진취성, 진정성, 협력성,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네팔은 혁신성, 위험감수성, 협력성, 네트워킹역량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중요도는 높고 실행도가 낮은 역량집중영역(Concentrate Here)은 역량강화가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으로 한국은 해당요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네팔은 진취성 요인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도는 낮으나 실행도가 높은 과잉제거영역(possible overkill)은 한국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나, 네팔의 경우 의사소통능력이 과잉요인으로 불필요한 강점으로 작용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낮은 우선순위(Low Priority)요인은 한국의 경우 위험감수성, 사회적 책

입, 도전성, 네트워킹역량이 해당되었으며, 네팔은 사회적 책임, 진정성, 도전성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나라 간에 다른 유형으로 나타난 요인 중 진취성은 실행도 강화가 요구되며, 위험감수성, 네트워킹역량은 네팔인 들의 강점으로 작용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진정성은 한국의 강점으로 작용하는 요인이지만 네팔은 우선순위가 낮은 요인으로 정반대의 패턴을 보였으며, 의사소통능력의 경우 네팔인 들은 중요도 인식이 낮으나 실행은 과잉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4.4 6차 산업 기업가정신 개별 문항의 국가별 중요도-실행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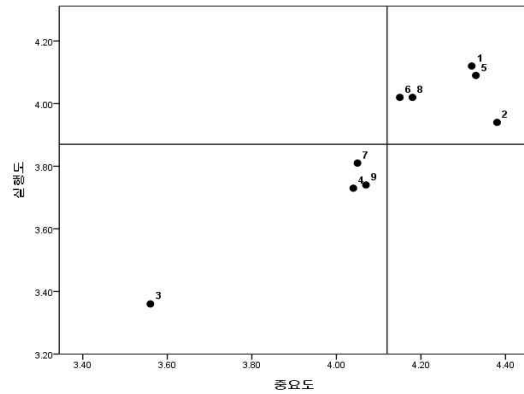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의 개별문항별 중요도와 실행도의 인식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림 2>는 중요도(좌상)와 실행도(우상)에 대해서 한국과 네팔의 각 문항별 비교를 시각화한 것이다. 하위에는 한국(좌하), 네팔(우하)의 중요도-실행도의 차이를 시각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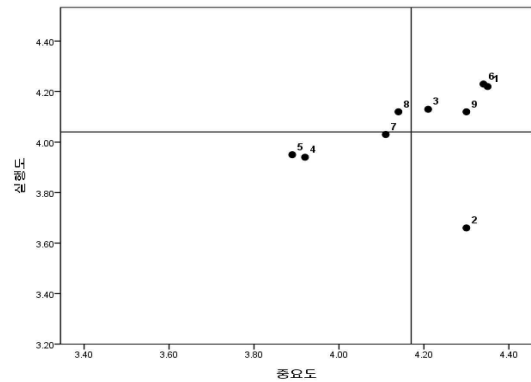
먼저 각 문항별 중요도에 대한 국가별차이를 <표 7, 8>에서 살펴보면, 혁신성 중요도는 “1.4. 창의적 마케팅방법을 활용하고자 노력한다($t=-2.159, p<.05$).”는 한국의 인식수준이 높았으며 “1.5.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한다($t=2.342, p<.05$).”는 네팔의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취성 중요도는 “2.1. 시장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가 $t=2.795, p<.01$ 로 한국의 인식수준이 높았다.

위험감수성 중요도는 “3.2. 위험이 높더라도 수익이 큰 사업을 선호한다($t=-5.704, p<.001$).”, “3.3. 기회를 잡기 위해 약간은 무모하더라도 도전한다($t=-5.530, p<.001$).”, “3.4. 새로운 사업 분야에 적극 진출하려고 노력한다($t=-4.076, p<.001$).”, 그리고 “3.5.



<그림 3> 한국의 기업가정신 요인별 IPA Matrix



<그림 4> 네팔의 기업가정신 요인별 IPA Matrix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들면 과감하게 투자한다($t=-9.312, p<.001$).”에서 한국보다 네팔의 인식수준이 높았다.

사회적 책임 중요도는 “4.3. 나는 기부 협찬활동을 꾸준히 실천한다($t=3.651, p<.001$).”, “4.4. 고용창출을 통해 서 사회의 경제적 성장에 기여한다($t=2.200, p<.05$).”에서 한국의 인식수준이 네팔보다 높았다.

진정성 중요도는 “5.1. 진심에서 우리나라는 서비스를 한다($t=7.905, p<.001$).”, “5.4. 자신의 내면에서 우리나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t=4.748, p<.001$).”에서 한국의 인식수준이 높았으며, “5.5. 인간적인 느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t=-2.193, p<.05$).”에서는 한국보다

<표 7> 6차 산업 기업가정신 각 문항의 중요도-실행도의 국가 간 차이

특성	번호	중요도						실행도							
		한국		네팔		전체		한국		네팔		전체		t(p)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혁신성	1.1.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	4.27	0.61	4.25	0.57	4.26	0.59	.243 (.808)	4.18	0.60	4.08	0.78	4.15	0.67	.926 (.356)
	1.2. 신제품 개발이나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한다.	4.35	0.54	4.34	0.93	4.35	0.70	.015 (.988)	4.09	0.76	4.18	0.76	4.12	0.76	-.761 (.448)
	1.3.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려고 노력한다.	4.21	0.63	4.43	0.78	4.29	0.70	-1.818 (.072)	4.02	0.72	4.46	0.50	4.18	0.68	-4.188***(.000)
	1.4. 창의적 마케팅방법을 활용하고자 노력한다.	4.32	0.60	4.52	0.59	4.39	0.60	-2.159*(.032)	4.14	0.69	4.26	0.77	4.19	0.72	-1.016 (.311)
	1.5.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한다.	4.45	0.57	4.23	0.62	4.37	0.60	2.342* (.020)	4.14	0.76	4.11	0.88	4.13	0.80	.228 (.820)
진취성	2.1. 시장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	4.36	0.61	4.07	0.70	4.25	0.66	2.795**(.006)	3.95	0.73	2.98	1.06	3.59	0.98	6.328***(.000)
	2.2.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다.	4.47	0.59	4.56	0.70	4.50	0.63	-.847 (.398)	4.04	0.75	3.34	0.81	3.78	0.84	5.562***(.000)
	2.3. 경쟁사의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한다.	4.30	0.68	4.21	0.55	4.27	0.64	.874 (.383)	3.74	0.91	3.54	0.74	3.67	0.86	1.446 (.150)
	2.4. 신제품 개발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한다.	4.37	0.67	4.34	0.68	4.36	0.67	.195 (.846)	4.01	0.69	4.41	0.64	4.16	0.70	-3.690***(.000)
	2.5. 끊임없이 틈새시장을 찾고 신속하게 공략한다.	4.39	0.67	4.30	0.82	4.36	0.73	.839 (.403)	3.94	0.77	4.00	0.73	3.96	0.76	-.472 (.638)
위험 감수성	3.1. 위험을 무릅쓰고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3.86	0.90	3.89	0.84	3.87	0.87	-.209 (.835)	3.50	0.91	4.11	0.66	3.73	0.88	-4.989***(.000)
	3.2. 위험이 높더라도 수익이 큰 사업을 선호한다.	3.21	0.99	4.08	0.86	3.53	1.03	-5.704***(.000)	3.09	1.00	3.97	0.80	3.41	1.02	-5.889***(.000)
	3.3. 기회를 잡기 위해 약간의 무모하더라도 도전한다.	3.13	1.05	3.90	0.72	3.42	1.01	-5.530***(.000)	3.13	1.04	3.82	0.83	3.38	1.02	-4.455***(.000)
	3.4. 새로운 사업 분야에 적극 진출하려고 노력한다.	3.89	0.81	4.43	0.81	4.09	0.85	-4.076***(.000)	3.54	0.90	4.26	0.63	3.81	0.88	-6.046***(.000)
	3.5.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들면 과감하게 투자한다.	3.69	1.02	4.75	0.43	4.08	0.99	-9.312***(.000)	3.56	0.98	4.49	0.70	3.90	1.00	-7.103***(.000)
사회적 책임	4.1.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한다.	4.04	0.70	4.11	0.58	4.07	0.65	-.722 (.472)	3.88	0.76	4.11	0.64	3.96	0.72	-2.175* (.031)
	4.2.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공익사업을 한다.	3.99	0.79	3.95	0.90	3.98	0.83	.294 (.769)	3.75	0.82	4.13	0.81	3.89	0.83	-2.897**(.004)
	4.3. 기부·협찬활동을 꾸준히 실천한다.	3.97	0.81	3.46	0.91	3.78	0.88	3.651***(.000)	3.64	0.90	3.62	0.80	3.64	0.86	.152 (.879)
	4.4. 고용창출을 통해서 사회의 경제적 성장에 기여한다.	4.13	0.68	3.87	0.78	4.04	0.73	2.200* (.030)	3.72	0.94	4.16	0.64	3.88	0.87	-3.598***(.000)
	4.5. 지역공동체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있다.	4.12	0.69	4.10	0.83	4.11	0.74	.142 (.887)	3.71	0.89	3.57	0.74	3.66	0.84	1.020 (.309)
	4.6. 지역행사에 참여하고 지원한다.	4.01	0.73	4.03	0.98	4.02	0.83	-.173 (.863)	3.70	0.83	4.05	0.67	3.83	0.79	-2.931**(.004)
진정성	5.1. 진심에서 우리나라는 서비스를 한다.	4.35	0.65	2.87	1.37	3.80	1.21	7.905***(.000)	4.03	0.77	3.66	1.17	3.89	0.95	2.229* (.028)
	5.2. 정성을 다해 서비스를 한다.	4.32	0.64	4.16	0.69	4.26	0.66	1.442(.151)	4.06	0.75	4.05	0.83	4.05	0.78	.068 (.946)
	5.3. 정직하게 서비스를 한다.	4.33	0.67	4.26	0.60	4.30	0.65	.617 (.538)	4.20	0.67	4.34	0.63	4.25	0.66	-1.342 (.182)
	5.4. 자신의 내면에서 우리나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4.35	0.68	3.61	1.10	4.07	0.93	4.748***(.000)	4.09	0.68	3.28	1.02	3.79	0.91	5.508***(.000)
	5.5. 인간적인 느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4.33	0.70	4.56	0.62	4.41	0.68	-2.193* (.030)	4.08	0.71	4.41	0.69	4.20	0.72	-2.944**(.004)
협력성	6.1. 공동목표에 참여하고 따른다.	4.09	0.67	4.26	0.70	4.15	0.69	-1.596 (.112)	3.93	0.82	3.75	0.72	3.87	0.79	1.415 (.159)
	6.2. 동료들을 배려한다.	4.19	0.64	4.51	0.62	4.31	0.65	-3.092**(.002)	4.04	0.72	4.51	0.57	4.21	0.71	-4.350***(.000)
	6.3. 우리 조직에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4.30	0.61	4.34	0.66	4.32	0.62	-.459 (.647)	4.11	0.62	4.49	0.67	4.25	0.67	-3.654***(.000)
	6.4. 조직이 어려운 상황일 때 희생한다.	4.02	0.74	4.30	0.53	4.12	0.68	-2.562*(.011)	3.95	0.76	4.16	0.66	4.03	0.73	-1.819 (.071)
	6.5. 동료의 필요를 보면 도와준다.	4.16	0.62	4.31	0.67	4.22	0.64	-1.428 (.155)	4.07	0.67	4.23	0.76	4.13	0.71	-1.424 (.156)

도전성	7.1. 안정적인 일보다 개척하고 변화하는 일을 좋아한다.	3.82	0.80	4.34	0.77	4.01	0.83	-4.145***(.000)	3.68	0.80	3.84	0.71	3.74	0.77	-1.273 (.205)
	7.2. 경험이 없는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3.62	0.93	3.33	1.01	3.51	0.97	1.858 (.065)	3.63	0.86	3.46	1.01	3.57	0.92	1.187 (.237)
	7.3. 매사에 매우 정열적으로 일한다.	4.20	0.70	4.38	0.58	4.27	0.66	-1.644 (.102)	3.81	0.78	4.44	0.50	4.04	0.75	-5.721***(.000)
	7.4. 주어진 일의 어려움이 크더라도 최선을 다한다.	4.29	0.66	4.26	0.51	4.28	0.61	.283 (.778)	4.00	0.70	4.10	0.60	4.04	0.66	-.921 (.358)
	7.5.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이 있다.	4.32	0.61	4.25	0.65	4.29	0.62	.707 (.480)	3.93	0.71	4.31	0.85	4.07	0.79	-2.933**(.004)
의사소통능력	8.1.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18	0.63	4.18	0.65	4.18	0.64	.023 (.982)	4.04	0.70	4.13	0.59	4.07	0.66	-.872 (.384)
	8.2. 상대방의 의견에 경청하고, 반응한다.	4.19	0.58	4.00	0.88	4.12	0.71	1.532 (.129)	4.07	0.64	4.00	0.80	4.04	0.70	.594 (.553)
	8.3. 자유롭게 나의 의견을 제시한다.	4.17	0.63	4.21	0.61	4.19	0.62	-.399 (.690)	3.99	0.70	4.43	0.50	4.15	0.67	-4.250***(.000)
	8.4.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조정한다.	4.13	0.64	4.20	0.75	4.16	0.68	-.542 (.589)	3.98	0.72	4.00	0.75	3.99	0.73	-.162 (.871)
	8.5. 상대방의 주장과 행동에 관심을 기울인다.	4.22	0.59	4.11	0.73	4.18	0.65	1.021 (.309)	4.03	0.72	4.03	0.73	4.03	0.72	-.034 (.973)
네트워킹역량	9.1. 업무와 관련된 세미나나 워크숍에 자주 참석한다.	4.17	0.67	4.48	0.59	4.28	0.66	-2.900**(.004)	3.85	0.82	4.20	0.68	3.98	0.79	-2.815**(.005)
	9.2. 업무와 관련된 협회나 조직 활동에 자주 참석한다.	4.10	0.66	4.15	0.60	4.12	0.64	-.498 (.619)	3.75	0.87	4.25	0.57	3.93	0.80	-4.433***(.000)
	9.3. 다양한 사람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구한다.	4.15	0.65	4.28	0.84	4.20	0.73	-.999 (.320)	3.81	0.76	4.26	0.75	3.98	0.79	-3.713***(.000)
	9.4. 업무상 만난 사람들에게 자주 연락한다.	4.02	0.71	4.57	0.64	4.22	0.74	-5.007***(.000)	3.61	0.85	4.15	0.73	3.81	0.85	-4.156***(.000)
	9.5. 다양한 친교 모임에 자주 참석한다.	3.89	0.76	4.03	0.73	3.95	0.75	-1.145 (.254)	3.69	0.86	3.74	0.81	3.71	0.84	-.334 (.739)
전체		4.12	0.42	4.17	0.31	4.14	0.38	-.957 (.340)	3.87	0.49	4.04	0.35	3.93	0.45	-2.648**(.009)

*p<.05 **p<.01 ***p<.001

네팔의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성 중요도는 “6.2. 동료들을 배려한다(t=3.092, p<.01).”, “6.4. 조직이 어려운 상황일 때 희생한다(t=2.562, p<.05).”에서 한국보다 네팔의 인식수준이 높았다.

도전성 중요도는 “7.1. 안정적인 일보다 개척하고 변화하는 일을 좋아한다(t=4.145, p<.001).”로 한국보다 네팔의 인식수준이 높았다.

의사소통능력 중요도는 모든 문항이 국가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네트워킹역량 중요도는 “9.1. 업무와 관련된 세미나나 워크숍에 자주 참석한다(t=2.900, p<.01).”, “9.4. 업무상 만난 사람들에게 자주 연락한다(t=5.007, p<.001).”에서 한국보다 네팔의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별 실행도에 대한 국가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혁신성 실행도는 “1.3.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려고 노력한다(t=4.188, p<.001).”에서 네팔의 실행도 수준이 높았다.

진취성 실행도는 “2.1. 시장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t=6.328, p<.001).”, “2.2.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다(t=5.562, p<.001).”는 한국의 실행도 수준이 높았고, “2.4. 신제품 개발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한다(t=3.690, p<.001).”는 한국보다 네팔의 실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감수성 실행도는 5개의 모든 문항에서 국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네팔의 실행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 중에서는 “4.1.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한다(t=2.175, p<.05).”, “4.2. 사회적 책임감을 갖

<표 8> 6차 산업 기업가정신 각 문항의 각 국가 간 중요도-실행도 차이

특성	번호	한국					네팔						
		중요	실행	구분		차이	paired t(p)	중요	실행	구분		차이	paired t(p)
		M	M	중요	실행			M	M	중요	실행		
혁신성	1.1.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	4.27	4.18	H	H	0.09	1.216 (.227)	4.25	4.08	H	H	.16	1.645 (.105)
	1.2. 신제품 개발이나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한다.	4.35	4.09	H	H	0.26	3.359**(.001)	4.34	4.18	H	H	.16	1.561 (.124)
	1.3.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려고 노력한다.	4.21	4.02	H	H	0.19	2.566* (.012)	4.43	4.46	H	H	-.03	-.331 (.742)
	1.4. 창의적 마케팅방법을 활용하고자 노력한다.	4.32	4.14	H	H	0.17	2.418* (.017)	4.52	4.26	H	H	.26	2.398* (.020)
	1.5.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한다.	4.45	4.14	H	H	0.31	4.039***(.000)	4.23	4.11	H	H	.11	.895 (.374)
진취성	2.1. 시장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	4.36	3.95	H	H	0.40	5.105***(.000)	4.07	2.98	L	L	1.08	6.400***(.000)
	2.2.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다.	4.47	4.04	H	H	0.43	5.450***(.000)	4.56	3.34	H	L	1.21	11.870***(.000)
	2.3. 경쟁사의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한다.	4.30	3.74	H	L	0.56	6.388***(.000)	4.21	3.54	H	L	0.67	5.783***(.000)
	2.4. 신제품 개발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한다.	4.37	4.01	H	H	0.36	5.216***(.000)	4.34	4.41	H	H	-0.07	-.563 (.576)
	2.5. 끊임없이 틈새시장을 찾고 신속하게 공략한다.	4.39	3.94	H	H	0.45	5.682***(.000)	4.30	4.00	H	L	0.30	2.292* (.025)
위험 감수성	3.1. 위험을 무릅쓰고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3.86	3.50	L	L	.36	3.614***(.000)	3.89	4.11	L	H	-.23	-1.606 (.114)
	3.2. 위험이 높더라도 수익이 큰 사업을 선호한다.	3.21	3.09	L	L	.13	1.434 (.155)	4.08	3.97	L	L	.11	.880 (.382)
	3.3. 기회를 잡기 위해 약간은 무모하더라도 도전한다.	3.13	3.13	L	L	.01	.111 (.912)	3.90	3.82	L	L	.08	.648 (.520)
	3.4. 새로운 사업 분야에 적극 진출하려고 노력한다.	3.89	3.54	L	L	.36	3.929***(.000)	4.43	4.26	H	H	.16	1.645 (.105)
	3.5. 아이টে에 대한 확신이 들면 과감하게 투자한다.	3.69	3.56	L	L	.13	1.407 (.163)	4.75	4.49	H	H	.26	3.124**(.003)
사회적 책임	4.1.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한다.	4.04	3.88	L	H	.16	2.544* (.012)	4.11	4.11	L	H	0.00	0.000 (1.000)
	4.2.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공익사업을 한다.	3.99	3.75	L	L	.24	2.995**(.003)	3.95	4.13	L	H	-0.18	-1.626 (.109)
	4.3. 기부 협찬활동을 꾸준히 실천한다.	3.97	3.64	L	L	.33	4.567***(.000)	3.46	3.62	L	L	-0.16	-1.862 (.067)
	4.4. 고용창출을 통해서 사회의 경제적 성장에 기여한다.	4.13	3.72	H	L	.41	4.480***(.000)	3.87	4.16	L	H	-0.30	-2.870** (.006)
	4.5. 지역공동체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있다.	4.12	3.71	H	L	.40	4.762***(.000)	4.10	3.57	L	L	0.52	3.659** (.001)
	4.6. 지역행사에 참여하고 지원한다.	4.01	3.70	L	L	.31	4.106***(.000)	4.03	4.05	L	H	-0.02	-.136 (.892)
진정성	5.1.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를 한다.	4.35	4.03	H	H	.32	4.088***(.000)	2.87	3.66	L	L	-.79	-4.534***(.000)
	5.2. 정성을 다해 서비스를 한다.	4.32	4.06	H	H	.26	3.800***(.000)	4.16	4.05	L	H	.11	.910 (.366)
	5.3. 정직하게 서비스를 한다.	4.33	4.20	H	H	.13	2.062* (.042)	4.26	4.34	H	H	-.08	-.869 (.389)
	5.4.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4.35	4.09	H	H	.26	3.879***(.000)	3.61	3.28	L	L	.33	2.315* (.024)
	5.5. 인간적인 느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4.33	4.08	H	H	.25	3.412**(.001)	4.56	4.41	H	H	.15	1.538 (.129)
협력성	6.1. 공동목표에 참여하고 따른다.	4.09	3.93	L	H	.15	1.967 (.052)	4.26	3.75	H	L	.51	4.571***(.000)
	6.2. 동료들을 배려한다.	4.19	4.04	H	H	.15	2.360* (.020)	4.51	4.51	H	H	.00	0.000(1.000)
	6.3. 우리 조직에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4.30	4.11	H	H	.19	3.222**(.002)	4.34	4.49	H	H	-.15	-1.586 (.118)
	6.4. 조직이 어려운 상황일 때 희생한다.	4.02	3.95	L	H	.07	.980 (.329)	4.30	4.16	H	H	.13	1.656 (.103)
	6.5. 동료의 필요를 보면 도와준다.	4.16	4.07	H	H	.10	1.517 (.132)	4.31	4.23	H	H	.08	.760 (.450)
도전성	7.1. 안정적인 일보다 개척하고 변화하는 일을 좋아한다	3.82	3.68	L	L	.13	1.713 (.090)	4.34	3.84	H	L	.51	5.038***(.000)
	7.2. 경험이 없는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3.62	3.63	L	L	-.02	-.195 (.846)	3.33	3.46	L	L	-.13	-1.016 (.314)

	7.3. 매사에 매우 정열적으로 일한다	4.20	3.81	H	L	.39	4.483***(.000)	4.38	4.44	H	H	-.07	-.851 (.398)
	7.4. 주어진 일의 어려움이 크더라도 최선을 다한다	4.29	4.00	H	H	.29	3.638***(.000)	4.26	4.10	H	H	.16	1.800 (.077)
	7.5.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이 있다	4.32	3.93	H	H	.38	5.290***(.000)	4.25	4.31	H	H	-.07	-.489 (.626)
의사소통능력	8.1.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18	4.04	H	H	.14	1.914 (.058)	4.18	4.13	H	H	.05	.622 (.536)
	8.2. 상대방의 의견에 경청하고, 반응한다.	4.19	4.07	H	H	.13	1.921 (.058)	4.00	4.00	L	L	.00	0.000(1.000)
	8.3. 자유롭게 나의 의견을 제시한다.	4.17	3.99	H	H	.18	2.205* (.030)	4.21	4.43	H	H	-.21	-3.200**(.002)
	8.4.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조정한다.	4.13	3.98	H	H	.15	2.064* (.042)	4.20	4.00	H	L	.20	1.802 (.077)
	8.5. 상대방의 주장과 행동에 관심을 기울인다.	4.22	4.03	H	H	.19	2.610* (.010)	4.11	4.03	L	L	.08	.927 (.357)
네트워킹역량	9.1. 업무와 관련된 세미나나 워크숍에 자주 참석한다.	4.17	3.85	H	L	.33	4.201***(.000)	4.48	4.20	H	H	.28	3.423**(.001)
	9.2. 업무와 관련된 협회나 조직 활동에 자주 참석한다.	4.10	3.75	L	L	.35	4.425***(.000)	4.15	4.25	L	H	-.10	-1.180 (.242)
	9.3. 다양한 사람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구한다.	4.15	3.81	H	L	.35	4.017***(.000)	4.28	4.26	H	H	.02	.155 (.877)
	9.4. 업무상 만난 사람들에게 자주 연락한다.	4.02	3.61	L	L	.41	5.561***(.000)	4.57	4.15	H	H	.43	4.970***(.000)
	9.5. 다양한 친구 모임에 자주 참석한다.	3.89	3.69	L	L	.20	2.933**(.004)	4.03	3.74	L	L	.30	2.459* (.017)
전체		4.12	3.87			.25	8.402***(.000)	4.17	4.04			.13	4.961***(.000)

*p<.05 **p<.01 ***p<.001

고 공익사업을 한다($t=-2.897, p<.01$).”, “4.4. 고용창출을 통해서 사회의 경제적 성장에 기여한다($t=-3.598, p<.001$).”, 그리고 “4.6. 지역행사에 참여하고 지원한다($t=-2.931, p<.01$).” 문항에서 한국보다 네팔의 실행도 수준이 높았다.

진정성 실행도는 “5.1. 진심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한다($t=2.229, p<.01$).”, “5.4. 자신의 내면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t=5.508, p<.001$).”는 한국의 실행도가 높았으며, “5.5. 인간적인 느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t=-2.944, p<.01$).” 문항에서는 한국보다 네팔의 실행도가 높았다.

협력성 실행도는 “6.2. 동료들을 배려한다($t=4.350, p<.001$).”, “6.3. 우리 조직에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t=-3.654, p<.001$).”에서 한국보다 네팔의 실행도가 높았다.

도전성 실행도는 “7.3. 매사에 매우 정열적으로 일한다($t=-5.721, p<.001$)”, “7.5.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이 있다($t=-2.933, p<.01$)” 문항에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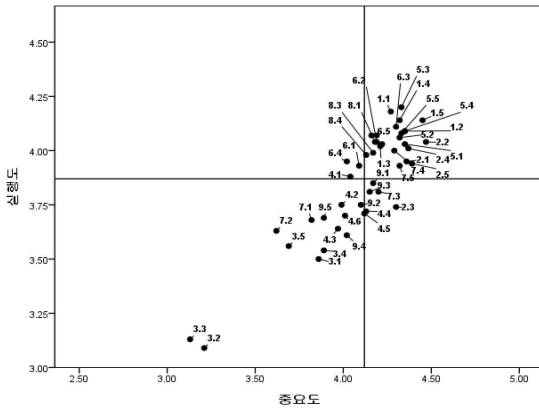
국보다 네팔의 실행도가 높았다.

의사소통능력 실행도는 “8.3. 자유롭게 나의 의견을 제시한다($t=-4.250, p<.001$).”에서, 네트워킹역량 중에서는 “9.1. 업무와 관련된 세미나나 워크숍에 자주 참석한다($t=-2.815, p<.01$).”, “9.2. 업무와 관련된 협회나 조직 활동에 자주 참석한다($t=-4.433, p<.001$).”, “9.3. 다양한 사람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구한다($t=-3.713, p<.001$).”, 그리고 “9.4. 업무상 만난 사람들에게 자주 연락한다($t=-4.156, p<.001$).”에서 한국보다 네팔의 실행도 수준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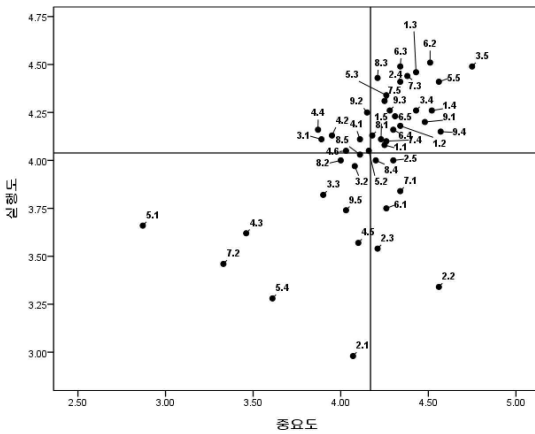
다음으로 한국과 네팔의 중요도 인식과 실행도 인식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 7,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중요도 보다 실행도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혁신성 중에서 “1.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 위험 감수성 중에서 “3.2. 위험이 높더라도 수익이 큰 사업을 선호한다.”, “3.3. 기회를 잡기 위해 약



<그림 5> 한국의 기업가정신 세부문항별 IPA Matrix



<그림 6> 네팔의 기업가정신 세부문항별 IPA Matrix

간은 무모하더라도 도전한다.”, 그리고 “3.5.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들면 과감하게 투자한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중요도가 실행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 중에서는 “4.1.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한다.”, 협력성 중에서는 “6.1. 공동목표에 참여하고 따른다.”, “6.4. 조직이 어려운 상황일 때 희생한다.”, “6.5. 동료의 필요를 보면 도와준다.”, 도전성 중에서 “7.1. 안정적인 일보다 개척하고 변화하는 일을 좋아한다.”, “7.2. 경험이 없는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의사소통능력 중 “8.1.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 “8.22. 상대방의 의견에 경청하고, 반응한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중요도가 실행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팔은 혁신성 중에서는 “1.4. 창의적 마케팅방법을 활용하고자 노력한다($t=2.398, p<.05$).” 문항이, 진취성 중에서는 “2.1. 시장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t=6.400, p<.001$).”, “2.2.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다($t=11.870, p<.001$).”, “2.3. 경쟁사의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한다($t=5.783, p<.001$).”, 그리고 “2.5. 끊임 없이 틈새시장을 찾고 신속하게 공략한다($t=2.292, p<.05$).”의 문항에서 중요도 수준이 실행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감수성 중에서는 “3.5.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들면 과감하게 투자한다($t=3.124, p<.01$).”, 사회적 책임은 “4.5. 지역공동체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있다($t=3.659, p<.01$).” 문항이, 진정성 중에서는 “5.4.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t=2.315, p<.05$).” 문항이, 협력성 중 “6.1. 공동목표에 참여하고 따른다($t=4.571, p<.001$).”, 도전성 중 “7.1. 안정적인 일보다 개척하고 변화하는 일을 좋아한다($t=5.038, p<.001$).”, 네트워킹역량 중 “9.1. 업무와 관련된 세미나나 워크숍에 자주 참석한다($t=3.423, p<.01$).”, “9.4. 업무상 만난 사람들에게 자주 연락한다($t=4.970, p<.001$).”, “9.5. 다양한 친교 모임에 자주 참석한다($t=2.459, p<.05$).”의 문항에서 중요도수준이 실행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책임 중에서 “4.4. 고용창출을 통해서 사회의 경제적 성장에 기여한다($t=2.870, p<.01$).”, 진정성 중에서는 “5.1.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를 한다($t=4.534, p<.01$).”, 의사소통능력 중에서는 “8.3. 자유롭게 나의 의견을 제시한다($t=3.200, p<.01$).”, 진정성 중에서는 “5.1.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를 한다($t=4.534, p<.001$).”, 의사소통능력 중에서는 “8.3. 자유롭게 나의 의견을 제시한다($t=3.200, p<.01$).” 문항에서 네팔인들의 중요도 인식보다 실행도 인식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혁신성, 협력성의 경우는 한국과 네팔 모두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취성 부분은 한국에 비해 네팔의 실행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험감수성의 경우 네팔은 우수한 수준의 기업가정신인데 반해 한국은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기업가정신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 도전성은 낮은 우선순위였으며, 진정성의 경우 한국은 우수한 수준의 기업가정신인데 반해 네팔은 그 순위가 매우 낮았다. 의사소통능력 부분은 한국은 우수한 수준이었으나 네팔은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고 실천력이 높은 기업가정신이었다. 네트워킹역량은 한국의 경우 우선순위가 낮은 기업가정신이었으나 네팔은 우수한 기업가정신으로 나타났다.

<그림 5>과 <그림 6>에서 제시된 IPA Matrix를 통해 살펴본 결과, 혁신성은 모든 세부항목에서 한국과 네팔이 동일한 유형이었으며, 진취성은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만 동일한 유형을 보였다. 특히 시장 흐름파악에 대해 한국은 강점으로 작용하는 반면 네팔은 우선순위가 낮은 요인을 나타냈다.

그 외 고객 니즈파악, 경쟁사 움직임 파악, 틈새시장 공략은 한국은 강점이었으나 네팔은 약점요인으로 집중적 역량강화가 요구되는 요인이었다.

위험감수성은 수익성 높은 사업과 기회에 대한 위험성 부분이 두 나라 모두 낮은 우선순위를 보였다.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네팔인들은 과잉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사업 진출과 아이템 확보에 대한 적극성도 네팔인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강점요인으로 작용됨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책임 중 사회의 공헌노력, 기부협찬 활동은 네팔과 한국이 동일한 유형이었으며, 사회적 책임감을 통한 공익사업, 지역행사참여는 한국은 낮은 우선순위인데 비해 네팔의 경우 중요도는 낮지만 실행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적 성장기여, 지역공동체 필요성 파악에서 중요도 인지에 비해 실행도가 낮았다. 네팔은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적 성장기여는 과잉투자자로 나타났으며, 지역공동체 필요성 파악은 중점 집중개선 내용으로 나타났다.

진정성의 경우 한국은 모든 항목이 유지관리영역으로 나타났으나 네팔의 경우는 정직한 서비스, 인간적인 서비스만 동일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정성스러운 서비스는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타났고, 진심어린 서비스와 자신의 내면으로 우러나는 서비스는 우선 개선대상으로 나타났다.

협력성 부분에서 동료배려, 책임과 역할의 다함, 동료도움은 한국과 네팔 모두 유지관리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공동목표 참여는 중점 개선영역으로 나타났다. 조직이 어려운 상황일 때 희생에 대해 부분은 한국은 과잉 투자영역이었으나 네팔은 우선관리 영역으로 나타났다.

도전성은 어려움이 큰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힘든 어려움 극복은 모두 유지관리 영역이며, 경험이 없는 새로운 업무 도전은 모두 개선대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영역이었다. 그러나 개척, 변화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실행도는 모두 낮았으며, 중요도는 한국만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에 매우 정렬적인 일함의 중요도는 높으나 네팔은 실행도는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영역은 한국은 모두 유지관리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네팔의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모두 지속유지관리 영역으로 나타났다. 상대방 의견 경청과 상대방 주장 행동 관심의 경우 네팔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낮아서 개선대상 영역으로 나타났다. 네팔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조정하는 것에서 실행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킹역량은 다양한 친교모임은 한국과 네팔

모두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개선대상 영역이며, 워크샵이나 세미나 참석은 한국은 중점개선 영역이었으나 네팔은 모두 유지관리 영역이었다. 그리고 협회나 조직 활동 참석의 경우 한국은 순위가 낮은 개선대상 영역이었으나 네팔은 과잉투자영역이었다. 한국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업무관련 정보취득은 중점개선 영역이었으나 네팔은 유지관리 영역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만난 사람들과의 연락에 대해서는 한국은 모두 우선순위 낮은 개선대상 영역이었으나, 네팔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은 유지관리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네팔 농업인의 기업가정신의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교육전략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차 산업 기업가정신 중요도는 한국(M=4.12)과 네팔(M=4.17)간에 차이는 없었으나, 기업가정신 실행도는 한국 M=3.87, 네팔 M=4.04로 네팔 농업인의 기업가정신 실행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가정신 중요도에서 위험감수성, 협력성, 네트워크역량은 한국보다 네팔 농업인의 중요도 인식이 보다 높았다. 기업가정신 실행도는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책임, 협력성, 도전성, 네트워크역량에서 한국보다 네팔의 실행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의 중요도와 실행도간 차이에서 한국은 모든 요인에서 중요도보다 실행도가 낮게 나타났다. 네팔은 혁신성, 진취성, 협력성, 네트워크역량에서 중요도가 실행도보다 높았다. <그림 2>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경우는 각 요인이 비슷한 간격으로 중요도보다 실행도가 낮은 반면, 네팔의 경우는 중요도와 실행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진취성

은 유독 실행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개별문항별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은 <그림 2>에서 보았듯이 국가 간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가 중요도 보다 실행도가 더욱 높았이가 크고 반동이 심하였다. 그러나 각국별 중요도와 실행도간의 차이에서는 한국은 일률적으로 중요도보다 실행도가 낮았으나, 네팔 농업인은 높았이가 일률적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 농업인들의 기업가정신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반해 네팔 농업인의 기업가정신은 매우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더욱 심도 있는 교육 훈련이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기업가정신의 부적절함은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네팔의 국가계획은 기술과 금융, 인프라와 같은 물리적 측면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업가의 교육 및 개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실정이다 [16].

기술 및 직업교육, 훈련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기업가적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제로 비즈니스가 가능한 잠재적 기업가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보다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네팔의 기업가정신 개발은 통합적으로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인력 교류와 네팔인의 한국진출이후 네팔로 돌아가 창업을 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네팔과 한국간의 상호 무역을 통해 보다 긴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6차 산업의 기술전수 및 교육이 국가 경제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과 네팔의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융·복합 시대인 지금 한국 진출 네팔 노동자들의 귀환 후 6차 산업 창업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과 협업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기업 협업 사례와 사이버 무역, 온라인 교육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한국과 네팔 기업가정신에 대해 연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국가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안진원·유대현, “잠재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문화의 영향: 캄보디아, 몽골, 네팔, 페루 및 르완다 대학생 사례 비교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2권, 제4호, 2017, pp.7-108.
- [2] 강유진, 아시아 6개 개발도상국의 경제 현황 및 특징, gk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14-4,
- [3]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National Credit Rating Report-Nepal,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2013.
- [4]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6차산업.com, 2021.
- [5] 박상혁·박정선·이명관, “성공적인 6차 산업을 위한 가치사슬 모형과 빅데이터 활용 방안,” (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11권 제2호, 2015, pp.141-152
- [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네팔, 2020.
- [7] 김연중·박상혁, “사회적 자본에 따른 6차 산업 기업가정신이 경영성파에 미치는 영향,” 정보시스템연구, 제25권, 제3호, 2016, pp.147-173.
- [8] 송재길·하규수,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과 혁신성과 관계연구-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6권, 제4호, 2010, pp. 267-278.
- [9] 김연중·박상혁·오승희, “기업가의 도덕성이 기업가정신 및 사회적 책임을 통한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보시스템연구, 제29권, 제1호, 2020, pp.137-158.
- [10] KC, S., Global aspects of entrepreneurship: Comparative Analysis of Nepal and Finland, 2019.
- [11] Prajapati, B.,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Business Students: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Westcliff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Research, Vol.54. 2019.
- [12] Nepal, H. P., Unveiling the Gap of Entrepreneur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Technical Institutions in Nepal, 2015.
- [13] Ghimire, S. S., “Promotion of Entrepreneurship through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in Nepal,”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Development, 68, 2011.
- [14] 김종빈·양승린·반다리·라비·한윤식, “효과적인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이중창업 모델: 네팔 알로 섬유 친환경 가공 적정기술 사업화 사례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제20권, 제4호, 2020, pp.435-449.
- [15] KC, J., A Gender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s Risk,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Barriers and Business Intentions in Nepal’s Tourism Sector, 2016.
- [16] KC, F. B., Entrepreneurs in Nepal: An Empirical Study. Kathmandu: Tribhuwan University Nepal, 2004.
- [17] Regmi, S., & Naharki, K., “A SWOT Analysis of Agribusiness Entrepreneurship in Nepal,” Food & Agribusiness Management, Vol.1, No.2, 2020, pp.60-65.
- [18] 김강현, “6차 산업화 정책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 우선순위 분석 - SWOP-AHP 방법론 적용하여," 지방행정연구, 제35호, 제1호, 2021, pp.223-262.
- [19] 농림축산식품부, 6차 산업 창업 매뉴얼, 정책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2014.
- [20] 이금동, "일본의 '농업의 6차 산업화' 관련 정책에 관한 재고," 지역개발연구, 제47권, 제2호, 2015, pp.121-147.
- [21] 김성규·박상혁·박정선·설병문·손은일, "6차 산업 기업가정신 지표개발," 벤처창업연구, 제11권, 제3호, 2016, pp.63-76.
- [22] 장수덕, "조직환경과 사내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 : 한국과 중국 중소기업의 비교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017. pp.139-160.
- [23] 장희찬·WANG LIN, "한·중국 기업가정신 비교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7권, 제6호, 2017, pp.927-935.
- [24] 배종태·차민석, "기업가정신과 벤처경영 부문의 연구동향: 한국과 미국의 학술지 비교분석 (1998-2004),"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제8권, 제3호, 2005, pp.141-177.
- [25] 남정민·김현성, "주요 20개국 기업가정신 비교 연구 : 기업가정신교육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제2권, 제1호, 2018, pp.1-22.
- [26] 김연중·박상혁, "IPA 분석을 이용한 6차 산업 기업가정신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제12권, 제3호, 2017, pp.197-218.
- [27] 김세영·윤성혜·임지영·장지은·강민정·박현경, "IPA 기법을 활용한 공학계열 여대생의 기업가정신 인식 및 교육 요구도 분석," 공학교육연구, 제20권, 제6호, 2017, pp.43-51.

■ 저자소개 ■



김 연 중
(Kim, Yeon Jong)

2008년 8월~현재
경상국립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강사
2013년 8월
경상국립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박사)
2006년 2월
경상국립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석사)
1993년 2월
경상국립대학교 정보통계학과
(이학사)
관심분야 : 개인정보보호, 기업가정신, 창업,
블록체인, 빅데이터분석, 정보확산,
소셜미디어행태, 텍스트마이닝
E-mail : kimyeonjong@gnu.ac.kr



박 상 혁
(Park, Sang Hyeok)

2003년 3월~현재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대학원 교수
2003년 2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1994년 8월
한국의대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석사)
1992년 2월
한국의대 경영정보학과(경영학사)
관심분야 : 비즈니스모델 혁신,
소셜미디어행태, 디자인생각,
빅데이터분석, 제약이론
E-mail : spark@gnu.ac.kr



이 경 연
(Lee, Kyoungyeon)

2016년 ~ 현재
(사)글로벌창업네트워크 이사
2011년 ~ 현재
서울YWCA 이사
2019년 2월
경상국립대 창업대학원 석사
관심분야 : 사회적기업, 창업, 성경제적계교육,
비즈니스모델교육, 기업가정신,
여성인권, 사회혁신운동
E-mail : kathy2009@crownkorea.org

논문접수일 : 2021년 5월 14일
수정일(1차) : 2021년 6월 3일
수정일(2차) : 2021년 6월 14일
수정일(3차) : 2021년 7월 9일
게재확정일 : 2021년 8월 9일